

# 대입진학지도 권역별 협의체 구성

### 전북교육청, 1~7권역 각 협의회 구성... 대입 지원전략·진학상담 방안 등 협의

올해 대입진학지도도를 위한 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 협의체가 도내 권역별로 구성된다.

협의체에는 100개 고등학교 진학부장들이 참여한다. 전북교육청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2019학년도 대입진학지도도를 위해 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 협의회를 도내 7개 권역별로 각

각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전주 인문계고 24개교로 구성된 1권역(전주인문계) 협의회를 시작으로 19일 군산인문계고 9개교가 참여한 2권역 협의회가 구성됐다.

21일에는 익산 인문계고 14개교 3학년 부장들이 참여하는 3권역 협의회가, 22일에는 정읍·고창 15개교로 이

뤄진 4권역 협의회, 25일에는 남원·임실·순창·장수 13개교로 구성된 5권역 협의회, 26일에는 김제·부안 13개교가 참여하는 6권역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28일에는 마지막으로 완주·진안·무주 12개교가 참여해 7권역 협의회를 구성한다.

각 권역별 협의회에서는 △진학지도

협의체 활성화 방안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대입 지원 전략 방안 △수시·정시 대비 권역별 진학상담 방안 △권역별 학생, 학부모 입시설명회 시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대입지도도를 위해서는 도교육청, 대입진학지도지원단, 그리고 권역별 협의체와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은성기자

## “지속가능한 농어촌 미래상 위해 노력할 터”

전북대 남해경 교수, 한국농촌건축학회 신임 회장 취임



전북대학교 남해경 교수(공대 건축공학과)가 최근 한국농촌건축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농촌건축학회는 1998년에 창립된 우리나라의 농촌 건축을 대표하는 학회다.

들과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전북 소외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농촌건축대전에서 지도한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해경 교수는 "최근 우리 농촌은 노후화와 문화·역사 복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 교류와 화합,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문가들 간 융합 및 통합 연구를 통해 동등 간의 난개발과 농촌지역의 삶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회는 일반적 학회와는 다르게 학회 활동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관련 전공 교수와 학생들이 '농촌독거노인 및 다문화가정 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을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공모전인 '농촌건축대전'을 개최하는 우리나라 농촌 관련 최대 학회다.

남 교수는 전북대 건축공학과 학생

/장은성기자

## 전북대, 중등교사 임용시험 역대 최다 합격자 배출

### 188명 합격... 작년 대비 12명 증가

전북대학교는 2019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역대 최대 합격자를 배출하며 중등교원 양성의 산실이라는 명예를 다시 한 번 드높였다.

전북대 사범대학은 2019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88명(공립학교 160명, 사립학교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공립 유치원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7명을 합격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사범대학 총 입학 정원이

215명임을 고려할 때 대단히 높은 합격률이며,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는 지난해 합격자보다 12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 전북권역에서는 192명의 교사를 선발했는데 이 중 83명이 전북대 졸업(예정)자였다. 이는 전북권역 전체 합격자의 43%를 넘어서는 높은 합격률이다. 명확하게 합격 여부 파악이 어려운 비시험계열에서 추후 합격자가 확인되면 숫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전북대 사범대학 입학 정원이 타 거점국립대학보다 적고 지역산발 인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다.

전북대가 매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체계적인 교육과 시험 대비 시스템 때문이다. 특히 고시원인 인재개발원 내에 임용시험 준비반인 '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각 합격자가 확인되면 숫자는 이보다 더

/장은성기자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범대 교수진이 직접 나서 그룹별로 학생을 지도하고, 외부 전문가 특강과 교육학 및 전공시험, 수업시연에서 면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원동력이 됐다.

권인택 사범대학장은 "우리대학이 매년 중등임용시험에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노력과 교수님들의 열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도교육청, 메이커교육으로 창의융합 인재 육성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 '미래창작공방' 8개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8개를 추가 조성해 도내 14개 시군 16개 발명교육센터 내 미래창작공방을 구축하고 2019 메이커교육 강화에 나선다.

메이커교육이란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보고 창의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16개 미래창작공방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월 1회 메이커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실시해

/장은성 기자

왔으며, 22일까지 전북과학교육원 창의공작실,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실 등에서 미래창작공방 맞춤형 직무연수를 운영 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목공·아크릴 활용 수업 ▲EV3로딩로봇 수업의 실제 ▲3D 프린터 실습 ▲이두이노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 ▲푸드 프린터와 UV 평판프린터 실습 ▲전북시제품제작소 탐방 ▲노벨 엔지니어링과 창의적 학습과정·수업사례 ▲분임토의 등이 이어진다.

한편, 메이커교육은 4월부터 교과, 창·체,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 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레슬링부, 전국레슬링대회 단체전 종합 2위 차지 '쾌거'

### 금3·은1·동2 획득

전주대학교 레슬링부(감독 박진규)가 제37회 회장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단체전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에서 전주대 운동처방학과 3학년 한은호 선수(그레코만형 67kg), 2학년 강현수 선수(그레코만형 87kg), 2학년 권정를 선수(그레코만형 97kg)가 금메달을, 4학년 정주은 선수(그레코만형 77kg)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운동처방학과 1학년 김민준·정명규 선수도 신입생임에도 탁월한 기량을 뽐내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운동처방학과 한은호 선수는 제주국제대 안형근 선수를 폴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여 충북대 김경섭 선수에게 2라운드에서 영치걸이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강현수 선수는 1·2차전 모두 테크니컬 폴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해 경남대 박준영



전주대 레슬링부가 회장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단체전 2위를 차지했다.

선수를 상대로 엿어치기 폴로 우승을 거두었다. 권정를 선수도 조선대 이동재 선수를 상대로 안아던지기 4점을 획득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주대 한은호 선수(운동처방학과 3학년)는 "작년에 부진했던 성적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열

심히 훈련에 임했다"며, "올해 첫 전국 대회에서 라이벌을 상대로 우승하게 돼 매우 뿌듯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레슬링부는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장은성 기자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는 우수한 신입생의 입학으로 전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 또, 학업과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이 서로 의지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잘 소화했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장은성 기자

## 호원대, 교원 대상 상담역량 강화 교육 실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학생상담센터는 교원의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19일 6층 회의실에서 교원 및 신입교원 등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대학생 상담의 실제'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원대상 상담역량 강화교육은 교원들이 상담과 관련해 학생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담과 관련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방법을 숙지하고 구조화된 상담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이번 교육은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호준 교수의 '대학생 상담의 실제'와, 본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가

/장은성 기자

자 학생상담센터 연구 교수인 강희양 교수의 '심리검사의 활용'을 주제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교원들은 대학생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방법과 학생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검사 이해 및 결과 활용법에 대한 스킬을 높여 학생상담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학생 관리 전면에 있는 교원의 상담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